

# 한옥 라운지바, 한옥 부티크호텔... “낡은 것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라”

박지현, 박한아 익선다다 대표

글 서미희 객원기자(markers@techm.kr)

떠들썩한 종로3가 4번 출구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익선동.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쇼핑 거리 느낌이 강한 인사동과 낙원악기상가를 경계로 '한옥 섬'이 펼쳐진다. 서울 사대문 안에 한옥 120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옥 섬은 익선동이 유일하다.

일제시대 서민을 위한 개량형 한옥이 들어섰던 익선동은 작고 산 집을 찾아 모여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다. 2004년 재개발이 가능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집주인들이 최소한의 보수만 해온 탓에 빈민가처럼 낙후됐지만 바로 이런 점이 익선동을 찾는 이로 하여금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2014년, 10년을 끌어 온 재개발이 무산됐다. 그 무렵 익선다다의 박지현, 박한아 대표는 우연히 이 익선동을 발견했다. 박지현 대표는 서양화를 전공해 전시, 공간 기획 일을 하고 있었고, 박한아 대표는 쉐어 하우스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 하루 한 명 찾던 익동다방, 명소 등극

박지현, 박한아 대표는 익선동이 전혀 관리 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옛날 할머니 댁이 있던 거리'로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익선동 정취에 반한 박지현, 박한아 대표는 그 날로 의기투합했다.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생기 있는 골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익동다방'이라는 카페를 오픈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사업은 쉽지 않았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파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옛 것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익선동'의 힘을 믿은 두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이어 시도했다. 그 결과 2017년, 익선동 주말 거리는 명동처럼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동남아 관련 음식을 파는 음식점 '동남아', 1980년대 여관 외관을 그대로 보존해 만든 부티크 호텔 '낙원장' 등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5개에 이른다.

박지현, 박한아 대표는 익선동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낡은 것도 새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익선동은 그런 면에서 콘텐츠가 아주 많은 공간이었어요.”



- 1 익선동 골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익선다다의 박지현(왼쪽), 박한아 대표.
- 2 옛 경양식 식당의 모습과 맛을 그대로 재현한 경양식1920.
- 3 한옥에서 즐기는 라운지 바 별천지.
- 4 카페 겸 영화 감상 공간인 영클비디오타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구체화하다 보니 아날로그 개념이 따라왔다. 그 때 잡힌 익선다다의 키워드가 바로 '뉴 아날로그'이다. 그 시대와 공간에서 쓰이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 대표는 카테고리를 나눠 익선동에서 아날로그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익선동에 들을 청(聽)거리, 느낄 감(感)거리, 먹을 식(食)거리, 볼 견(見)거리가 펼쳐진 것.

익선동 '경양식1920'에서는 옛 경양식 비주얼을 그대로 재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영클 비디오 타운과 만화거리에서는 옛날 영화와 만화를 체험할 수 있다. 청 거리는 1980년대 디스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별천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편집 숍과 낙원장도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붙잡는다. 익선동은 5060세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2030세대에게 오히려 세련된 것으로 통하는 '아날로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석 이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아직 진행 중인 익선동 프로젝트

건드리지 않고 때 묻지 않은 익선동이 좋았다는 두 대

표, 밤이면 불 하나 켜 있지 않던 거리에 익동다방을 만들었고 4년 여 만에 지금의 모습이 됐다. 얼마 전 출장차 포틀랜드를 다녀왔는데, 폐공장, 버려진 동네를 재생 지역으로 만든 거리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익선동의 변화를 추진하지만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 이 거리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익선동의 매력인 한옥을 그대로 지키며 각각의 특색 있는 멋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기와 등 외형을 새로 보수해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북촌과 삼청동의 한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익선동만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옛날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익선동의 골목길 풍경은 '아날로그'의 감성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❶